

기쿠치가와 강 유역의 관개 수로

기쿠치시 주변의 비옥한 평야에서는 2 천 년 전부터 대량의 쌀이 재배되어왔는데, 17 세기 이후 이데라고 하는 용수로 건설이 시작되어 재배 효율과 규모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. 이데는 기쿠치가와 강과 하자마가와 강의 물을 건조한 토지에 공급하여 더 많은 땅을 논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다. 강의 최상류에 취수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경사로 물을 내려보낸다. 물의 속도는 도중에 있는 논부터 가장 하류에 있는 논까지 효율적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적절한 속도다. 이데의 건설에는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지형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어야만 했다.

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이데는 기쿠치가와 강에서 서쪽으로 약 1 킬로미터 떨어진, 시가지를 향해 흐르는 쓰이지 이데로서 현재는 포장도로 아래를 흐르는 몇몇 지류로 분기되어 있다. 기쿠치 시청 앞에는 그 가운데 한 줄기가 있어 물레방아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. 수로의 물은 집안일이나 소방, 레저에 이용되며, 강변은 지금도 산책과 사이클링을 하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. 수로에서 중심적인 부분인 상류에는 이데를 만들게 한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 가토 기요마사(1562~1611)의 상이 서 있다.

하루 이데는 총길이 11 킬로미터로서 이데 가운데서는 가장 길다. 기쿠치가와 강 최상류에서 물을 끌어와 산간 지역을 횡단하기 때문에 약 500 미터의 터널이 있으며, 이 터널은 농업토목기술 역사상 높이 평가받고 있다. 이 이데는 1698년부터 1701년에 걸쳐 지역 촌장이 안을 내서 만들어졌으며, 기쿠치 지역 동쪽의 구릉지대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 벼농사가 가능하게 했다. 하루 이데는 지금도 약 200 헥타르 농경지의 관개 수로로서 이용되고 있다.